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불안요인 및 불안정도

Study on Level and Factors of Anxiety Affecting to Some Foreign Employees Working in Korea

김 원 숙*

I. 서 론

우리 나라 초기 경제정책의 유일한 생산요소는 풍부한 노동력이 중심이 되어왔으나 그동안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얻어진 국민소득과 생활향상은 근로자의 이른바 3D(Difficult, Dangerous, Dirty) 업종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과 일부 중소 제조업 부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발생시켰고, 외국인 산업근로자를 고용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외국인 산업 근로자들이 겪는 급격한 산업 문화적인 환경의 변화는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건강관리측면에서 볼 때 불안은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에 의한 건강수준의 변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Mutheney & Tophalis, 1974; 유숙자 등, 1982; 모경빈, 1984).

불안은 환자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람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정서이지만(유숙자 등, 1982) 외국인 산업근로자를 대상으로한 간호와 건강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외국인 산업근로자의 정서 심리적 반응인 불안의 요인과 그 정도

를 알아봄으로써 산업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건강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조사를 시도하였다.

II. 연구 및 방법

1. 대 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공단, 인천지역의 근접한 공단, 경기도 안산시, 성남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공단지역의 중소기업체와 D대학부속병원 응급센터를 내원한 외국인 산업근로자중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1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 법

1) 불안 측정

대상자의 영역별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Zung(1971)이 개발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Anxiety Status Inventory (이하 ASI라 함)를 이용하여 신체적 영역과 정서적 영역의 불안을 측정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불안을 요인별로 측정하기 위해서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제작한 설문지를 2명의 간호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총 30개 문항으로 수정 개발된 도구를 이용

* AEA international PTE 간호사

하였다. 측정은 '신체적 불안요인' '정서적 불안요인' '환경적 불안요인' '사회적 불안요인' '문화적 불안요인' '직업적 불안요인' 등 6개 요인에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1$ 이었다.

각 척도의 분석방법으로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 1점, "약간 느낀다"에 2점, "대체로 느낀다"에 3점, "심하게 느낀다"에 4점을 주는 4점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계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1996년 2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42일간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외국인 산업근로자 담당 행정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의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과 선교회를 통한 방법 그리고 질병과 사고로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 산업근로자 및 보호자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등 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중 175부를 회수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회수율=87.5%).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영역별 불안정도와 요인별 불안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도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불안요인과 불안정도와의 상관관계 및 각 불안요인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연구대상자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 총 175명의 국적을 보면 네팔이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방글라데시 17.7%, 필

리핀 14.9%의 순이었으며 가나가 1.1%로 가장 적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80%, 여자가 20%였고, 77.7%가 미혼이었으며, 연령은 25세-34세가 82.9%로 대부분이었다. 국내 거주 기간은 12개월 이하가 37.1%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58.8%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3.7%이었으며 대상자의 반 이상이 회사기숙사에 거주하였다(표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Characteristics	Number	%
Nationality		
Nepal	53	30.3
Pakistan	23	13.1
Philippines	26	14.9
Ghana	2	1.1
Srilanka	19	10.9
Bangladesh	31	17.7
Others	21	12.0
Sex		
Male	140	80.0
Female	35	20.0
Marital status		
Married	40	22.9
Single	135	77.1
Religion		
None	17	9.7
Protestant	66	37.7
Catholic	22	12.6
Buddhist	20	11.4
Others	50	28.6
Age (yrs)		
-24	20	11.3
25-29	98	56.0
30-34	47	26.9
35-	10	5.8
Education		
Under middle	13	7.5
High school	59	33.7
Over college	103	58.8
Duration (in Korea)		
less than 12 months	65	37.1
13 months to 24 months	51	29.1
more than 25 months	59	33.8
Employment experiences		
No	166	94.9
Yes	9	5.1
A kind of job		
clothing & textile	59	33.7
other manufacturing	74	42.3
construction	8	4.6
others	34	19.4
Housing		
company dormitory	103	58.9
company factory	56	32.0
house or room rented by yourself	15	8.6
others	1	0.6
	175	10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불안정도는 (표 2)와 같다. 즉 국적에 따라 불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서적 불안에서는 '가나'에서 온 사람들의 불안정도가 2.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자마이카, 미얀마, 베트남, 나이지리아의 사람들이 높았으며 네팔에서 온 사람들의 불안정도가 가장 낮아 통계적으로 의

Table 2. The level of Anxie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Affective	F / t	Somatic	F / t
Nationality				
Nepal	2.20±0.40	4.4842**	1.96±0.46	3.6144**
Pakistan	2.36±0.31		2.00±0.29	
Philippines	2.27±0.38		1.98±0.33	
Ghana	2.70±0.42		2.20±0.28	
Srilanka	2.23±0.34		2.15±0.30	
Bangladesh	2.37±0.38		2.22±0.29	
Others	2.66±0.40		2.30±0.29	
Sex				
Male	2.33±0.38	0.3263	2.10±0.39	1.8467
Female	2.29±0.46		2.00±0.29	
Age (yrs)				
-24	2.32±0.39	0.2419	1.99±0.39	1.5422
25-29	2.31±0.39		2.06±0.31	
30-34	2.37±0.42		2.10±0.37	
35-39	2.28±0.38		2.29±0.75	
40-	2.33±0.40		2.08±0.34	
Marital status				
Married	2.29±0.38	0.5362	2.09±0.49	0.3730
Single	2.34±0.40		2.08±0.34	
Religion				
None	2.46±0.32	2.2082	2.12±0.37	1.4950
Protestant	2.23±0.36		2.01±0.39	
Catholic	2.45±0.50		2.01±0.30	
Buddhist	2.27±0.37		2.16±0.31	
Others	2.37±0.41		2.15±0.4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44±0.52	2.6409	2.20±0.25	1.4941
Middle school	2.20±0.19		1.96±0.31	
High school	2.22±0.35		2.01±0.36	
Over college	2.39±0.42		2.12±0.39	
Living time				
less than 12	2.32±0.35	1.1986	2.09±0.34	2.3388
13 months to 24 months	2.45±0.41		2.28±0.31	
more than 25 months	2.36±0.48		2.06±0.48	
Employment experiences				
No	2.32±0.40	1.4149	2.08±0.37	1.9338
Yes	2.80±0.00		2.60±0.00	
A kind of job				
clothing & textile	2.38±0.35	0.5249	2.09±0.34	1.4738
other manufacturing	2.30±0.41		2.07±0.40	
construction	2.25±0.42		1.83±0.37	
others	2.30±0.43		2.13±0.37	
Housing				
company dormitory	2.33±0.38	0.1180*	2.09±0.38	2.2300
company factory	2.23±0.35		2.05±0.35	
house or room rented by oneself	2.67±0.52		2.04±0.36	
others	2.20±0.00		3.00±0.00	

* : P<0.005 ** : P<0.001

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 < 0.01$). 또한 신체적 불안에 서는 자마이카, 미얀마, 베트남, 나이지리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 2.30으로 가장 높았고 역시 네팔에서 온 사람들의 불안정도가 가장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전세나 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적 불안이 2.67로 회사기숙사나 공장에서 거주하는 사람보다 높았고, 신체적 불안에서는 거주 상태에 따라 비슷한 정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상태, 거주기간, 근무경력, 직업유형 등의 특성에 따라서는 불안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영역별 불안정도

Zung의 ASI를 이용하여 측정한 대상자의 불안정도는 2.20 ± 0.39 였고, 이를 정서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구분하여 보면 정서적 불안은 2.33 ± 0.40 , 신체적 불안은 2.08 ± 0.38 로 정서적 불안정도가 다소 높았다(표 3).

4. 요인별 불안정도

대상자의 불안을 6개 요인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역시 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이 2.52 ± 1.13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으로 2.43 ± 1.02 이었으며 신체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이 2.23 ± 0.97 로 가장 낮았다(표 4).

5. 영역별 불안정도와 불안요인간의 상관관계

Zung의 ASI로 측정한 불안정도와 요인별 불안간의 상관관계는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정서적 요인이 $r=0.4753$ 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다음은 신체적 요인의 상관이 높았으며($r=0.4408$), 사회적 요인의 상관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를 정서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구분하여 불안요인과 각각의 상관정도를 살펴보면(표 5-2) 정서적 불안은 역시 불안요인 중 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과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r=0.4283$), 다음은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순으로 상관이 높았다. 또한 신체적 불안도 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과 높은 상관($r=0.4057$)을 보였으며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 직업적 요인

의 순으로 상관이 있음을 보였다.

Table 3. Level of affective and somatic anxiety

Characteristics	Mean \pm S.D
Affective anxiety	2.33 \pm 0.40
anxiousness	2.21 \pm 0.86
fear	2.19 \pm 0.85
panic	1.86 \pm 0.82
mental disintegration	1.80 \pm 0.79
apprehension	2.17 \pm 0.89
Somatic anxiety	2.08 \pm 0.38
tremors	1.83 \pm 0.84
body aches and pains	2.47 \pm 0.92
easy fatigue weakness	2.42 \pm 0.89
restlessness	2.67 \pm 0.96
palpitation	1.91 \pm 0.87
dizziness	1.83 \pm 0.74
faintness	1.70 \pm 0.75
dyspnea	2.05 \pm 0.78
paresthesias	2.13 \pm 0.87
nausea and vomiting	2.00 \pm 0.80
urinary frequency	1.87 \pm 0.79
sweating	2.27 \pm 1.02
face flushing	1.96 \pm 0.81
insomnia	2.55 \pm 0.95
nightmares	1.57 \pm 0.79

Table 4. The level of anxiety by various factors

Factors	Mean \pm S.D.
somaic factors	2.23 \pm 0.97
emotional factors	2.52 \pm 1.13
environmental factors	2.41 \pm 1.05
social factors	2.43 \pm 1.02
cultural factors	2.35 \pm 0.98
occupational factors	2.41 \pm 0.81

Table 5-1. Correlation matrix of ASI score and anxiety level by factors

Factors	r scores
somatic factors	$r=0.4408^{**}$
emotional factors	$r=0.4753^{**}$
environmental factors	$r=0.3630^{**}$
social factors	$r=0.1810^{**}$
cultural factors	$r=0.3212^{**}$
occupational factors	$r=0.2792^{**}$

* : $P < 0.01$, ** : $P < 0.001$

Table 5-2. Correlation matrix of ASI score and anxiety level by factors

Factors	r scores
Affective anxiety	
somatic factors	0.3810**
emotional factors	0.4283**
environmental factors	0.2141*
social factors	0.1222
cultural factors	0.1981*
occupational factors	0.2028*
Somatic anxiety	
somatic factors	0.3818**
emotional factors	0.4057**
environmental factors	0.3495**
social factors	0.1689
cultural factors	0.3084**
occupational factors	0.2554**

* : P<0.01, ** : P<0.001

6. 불안요인간의 상관관계

대상자가 경험하는 불안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신체적 불안요인과는 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고, 정서적 불안요인과는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상관성이 있었다. 또 환경적 불안요인과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간에, 문화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간에도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표 6).

Table 6. Correlation matrix of anxiety factors

	Somatic	Emotional	Environmental	Social	Cultural	Occupational
Somatic	1.0000					
Emotional	0.4179**	1.0000				
Environmental	0.4054**	0.5740**	1.0000			
Social	0.677	0.2633**	0.2177*	1.0000		
Cultural	0.1682	0.2635**	0.2197*	0.2900**	1.0000	
Occupational	0.3550**	0.1155	0.0150	0.0626	0.2444**	1.0000

* : P<0.01, ** : P<0.001

Table 7.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nxiety

Variable	B	R	R ²	F	P-value
Social	0.14483	0.18103	0.03277	5.86150	0.0165
Occupational	0.16698	0.27917	0.07794	14.59642	0.0002
Cultural	0.26302	0.32116	0.10314	19.89590	0.0000
Environmental	0.16204	0.36301	0.13178	26.25789	0.0000
Somatic	0.20602	0.44079	0.19429	41.71787	0.0000
Emotional	0.17355	0.47534	0.22595	50.49875	0.0000

7. 불안에 대한 영향요인

대상자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단계 중회귀 분석을 이용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6개 요인이 모두 포함되었을 때 불안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22.6%로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그러나 그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정서적 요인이었고 다음이 신체적, 환경적, 문화적, 직업적, 사회적 요인의 순이었다.

IV. 고 찰

조규상(1991)은 해외취업 근로자들이 외부의 환경 변화와 내부의 생활변화에서 오는 많은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해외취업 근로자들의 현지 생활적응면에서 볼 때 한국인과는 상이한 생활여건과 자연환경 그리고 사회적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습성이나 생활방식의 변화로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김성진, 1995), 새롭고 낯선 상황에 직면한 외국인으로서 변화된 환경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므로 적응하기까지의 생활에서 겪는 심리적 갈등은 정서적인 불안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불안은 행동증상을 동반하며 인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들이다(민성길, 1995). Zung(1971)은 불안을 정서적, 신체

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서적 불안은 두려움, 공포, 공황, 정신적 붕괴, 우려 등으로 표현되는 심리적 반응이고 신체적 불안은 진전, 두통 및 신체통통, 잦은 피로감과 허약감, 안절부절, 심계항진, 현기증, 졸도, 호흡곤란, 지각이상, 오심과 구토, 빈뇨, 발한, 안면홍조, 불면, 악몽 등으로 이는 불안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작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라고 하였다.

해외취업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관하여 조규상(1991)은 경제적 이유로 오는 영양실조, 노동시간연장으로 오는 과로, 열대성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열증증,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일함으로써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언어, 문화, 풍속, 의식주, 작업환경, 의료와 사회보장제도 등 취업하는 나라에 대한 지식부족과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경험, 안전에 대한 교육, 의료시설의 미비, 해외취업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국민들의 태도도 문제발생의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규상, 1991). 즉 인간의 삶속에서 가장 흔히 경험할 수 있으며(김조자, 1982; 김순애, 1987), 새로운 환경이나 위협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으로 걱정, 두려움, 초조감과 긴장감으로 표현되는 가장 복잡하고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격렬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Sullivan, 1953; Zung, 1971; Horney, 1973; Wikenning, 1973; Lucente & Fleck, 1975; 유숙자 등, 1982; 이민규, 1996). 특히 외국인 산업근로자들은 새로운 생활환경과 작업장 내에서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되므로 신체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에서의 불안상태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부분 25세에서 34세 사이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조사에서의(정서적 불안 2.33 ± 0.40 , 신체적 불안 2.08 ± 0.38) 이들의 불안정도는 정서적 불안이 신체적 불안보다 높았다. 이는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입원 10일째 되는 환자의 평균 불안정도가 1.62, 24시간이내의 정신질환자는 2.66(김윤희, 1980), 불안신경증 외래환자의 평균 불안정도가 2.40(왕성근, 1978) 그리고 일반병원 입원환자의 불안정도가 2.25(Zung, 1971) 이상이었다고 보고한 결과들과 유사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불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상자의 거주상태에 따라서도 정서적 불안

에 차이를 보여 회사의 기숙사나 공장에서 거주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전세나 월세를 얻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의 불안이 높았던 것으로 보아 기숙사의 활용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불안의 정서적 요인 중에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믿고 의지할만한 사람이 없음에 대한 불안이었는데 인간이 안정된 가족을 떠나서 생소한 환경에 처해지는 것 자체가 불안요인이 된다고(김행자, 1975) 지적된바 있다.

한편 사회, 문화적 생활에서 언어는 매일의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업무와도 상관이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근로자의 경우 또다른 문제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는 불안요인 중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불안이 2.43으로 두 번째로 높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긍지를 느끼지 못하고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사회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Neylan(1962)이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생소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 문화적 상황과 역할에 직면했을 때 높은 불안반응을 보이고 산업재해의 경우 외국인 산업근로자의 사고가 현지 근로자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로 안전규칙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언어장애로 인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이민원, 1993) 보고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의사소통과 언어문제의 또 다른 연구(박충환, 1994)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한계로 인한 상호이해의 부족은 작업장 내에서의 잦은 마찰을 보이며 특별히 직업 또는 직장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불안요인은 직장 내에서의 안정성, 장애성, 적응성, 동료들 간의 대인관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가 직장내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점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는 2.14,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직장 상사와의 갈등은 2.23으로 언어와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작업과 일상생활내의 불안요인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외에도 이들은 근무시간이 길고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낮은 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도 미흡한 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으로 인한 직업적 요인의 불안도 높은 편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여가시간을 전혀 즐기지 못함으로 인한 답답함이 그 어떤 다른 요인의 불안보다 가장 높다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에 관해 조사한 연구에서 이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이 일과 수면이 반복되는 매우 단조로운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박충환, 1994)한 바와 매우 유사하였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단계 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서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중요한 변수였고 신체적 요인의 불안점수는 비교적 낮았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특히 신체적 요인 중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불안이 높았으며, 또 신체적 요인의 불안과 환경적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환경적 요인이 불안의 큰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불안이 자연환경과 심리적 환경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과 신체적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보고(김성진, 1995)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보아 외국인 산업근로자가 현지에서 단 기간내에 적응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충분한 기간동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및 결론

외국인 산업근로자의 정서 반응인 불안의 요인과 영역별 불안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이에 대한 건강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1996년 2월 25일부터 동년 4월 12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공단, 경기도 안산시, 성남시에 위치한 외국인 산업근로자 175명을 대상으로 5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국적은 네팔이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방글라데시 17.7%, 필리핀 14.9%, 스리랑카 10.9%의 순이었으며 가나가 1.1%로 가장 적었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80%, 여자가 20%였고, 77.7%가 미혼이었으며, 연령은 25세-34세가 82.9%로 대부분이었다. 국내 거주 기간은 12개월 이하가 37.1%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58.8%, 고졸이 33.7%로 높았으며 대상자의 반이

상이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도는 '가나'근로자의 정서적 불안정도가 2.70으로 가장 높았고 네팔 근로자이 불안정도가 가장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3$). 신체적 불안도 네팔 근로자들의 자마이카, 미얀마, 베트남, 나이지리아 근로자 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1$).
3. 숙소별로는 기숙사 거주자보다 전세 또는 월세거주자에서 정서적 불안이 유의하게 높았다.
4. 요인별 불안은 정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의 순위로 높았다.
5. 대상자가 경험하는 불안요인간의 상관관계는 신체적 불안요인과는 환경적 요인이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간, 문화적 요인과 직업적 요인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참 고 문 헌

- 김윤희 (1980). 정신과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
- 김순애 (1987). 이완술 정보제공이 심도자점사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17, 110-115.
- 김조자 (1982). 환자의 스트레스와 가족의 반응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행자 (1975). 입원환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5, 29-37.
- 김성진 (1995).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모경빈 (1984). 성인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의 관계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민성길 (1995).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238.
- 박충환 (1994).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 이민원 (1993).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민규 (1996).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서울: 양서원.
- 왕성근 (1978). 정신과 외래환자의 The Self-Rating Scale에 의한 불안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7(2).
- 유숙자, 김소야자, 김윤희, 원정숙, 이광자, 이소우

(1982). 신간호학총론. 서울: 수문사.

조규상 (1991). 산업보건학. 서울: 수문사, 102-103.

전산초 (1978). 임상의학의 이론과 전략. 서울: 수문사.

Horney, K. (1973). Our inner conflicts : A construction theory of neurosis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Inc.

Hyman, R. H., & Woog, P. (1982).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onset. Research in Nursing Health, 2, 155-163.

Lazarus, R. S. (1967). Cognitive and personality factors underlying threat and coping. In M. Appley & R. Trumbull (Eds), Psychological stress.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Lucente, F. E., & Fleck, S. (1975). A study of hospitalization anxiety in 408 medical-surgical patient. Psychosomatic Medicine, 134(4).

Litman, T. J. (1974). The family as a basic unit in health and medical care : A socio-behavior overview. Social Science and medicine(8), 495-519.

Mutheney, R. V., & Tophalis, M. (1974). Psychiatry nursing. Nursing Research, 6, 36-39.

Neylan, M. P. (1962). American Journal of Nursing, 62(5), 110-111.

Robert, J. H. (1965). Family Diagnosis : Research methods and their reliability for studies of the medical social unit, the famil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dhiatry. New York: W.W. Norton Comp.

Wikenig, H. E. (1973). The Psychology Almance : A handbook for students monetary.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Wu, R. (1973). Perception of hospitalization. In D.E. Johnsoned, Behavior and illnes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Zung, W.W.K. (1971).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 Psychosomatics, 12, 371-379.

- Abstract -

Key concept : Anxiety, Foreign employees, Culture

Study on Level and Factors of Anxiety Affecting to Some Foreign Employees Working in Korea

Kim, Won Sook*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anxiety factors and levels of anxiety of foreign industrial workers. One hundred and seventy five workers were researched who were working in Guro Working Complex, Ansan City and Sungnam City Working Complex asking 60 questionnaires from Feb. 25, 1996 to April 12, 1996.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30.3% of foreign workers were from Nepal, 17.7% from Bangladesh 10.9% from Srilanka, 14.9% from Philippines, 1.1% from Ghana. 80% of foreign workers were male, 77.7% were single and most of then were in the age from 25 to 34. 37.1% of foreign workers had not lived in Korea less than 12 months, 58.8% graduated from college, 33.7% from highschool, and more than half lived in a dormitory.
2. On the anxiety level related to subject workers' general characteristics, the workers level from Nepal recorded the highest point 2.70 statistically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P=0.0003). On the physical anxiety level, the workers from Nepal recorded a significantly low point comparing with Jamaica, Burma, Vietnam and Nigeria(P=0.01).

* AEA International PTE LTD Nurse,
Ho Chi Minh City, Vietnam

3. Emotional anxiety level marked the highest on the workers living as a tenant comparing with the workers in dormitory.
4. On anxiety factors, the emotional anxiety recoded the highest, the social anxiety and the somatic anxiety.
5. On the relation between the anxiety factor, the somatic anxiety factor had a relation with emotional, environmental, and occup-

ational factors and on the other relation between the anxiety factor and emotional factor had a relation with environmental, social, cultural factors.

Moreover, the environmental factor had a relation with the cultural factor, social factor had a relation with the cultural factor, and cultural factor was related to the occupational factor.